

‘청년창업 요람’ 청창사 사라진다… ‘재도전성공학교’ 전환

(청년창업사관학교)

중기부, 내년 예산 18.1조 ‘역대 최대’ 재창업자 입교·교육 19개 거점 활용
美 인큐텔형 안보전문투자기관 신설
신안보·혁신기업 정부 직접 투자
모두의 창업 지원 2만명으로 확대
사업화 자금 최대 3000만원 지원

‘청년창업 요람’ 역할을 한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재도전성공학교’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설립한 비영리 전략적 벤처캐피탈(VC) ‘인큐텔’(In-Q-Tel)과 같은 안보전문투자기관이 한국에도 생긴다.

올해 1만5000명을 지원했던 ‘모두의 창업’은 내년에 2만명까지 규모를 늘리고 사업화를 위한 지원자금도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7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16조5233억원) 대비 1조5491억원(9.4%) 늘어난 18조724억원으로 편성하고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이 3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7년 중소기업정부 예산안 편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부

고 1일 밝혔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내년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소액 뿌려주기식 관행적 지원사업 폐지, 융자사업에 대한 이차보전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

하고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예비 또는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실패원인 분석, 심리 치료 및 교육 등을 집중 지원하는 재도전성공학교(595억원), 재도전 성공사례 보유기업을 선발해 지원하는 ‘재도전 응원 프로젝트’(334억원)를 내년 처음으로 시작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재도전성공학교는 기존의 청년창업사관학교(청창사)와 같이 입교해 교육·지원하는 것으로 전국에 있는 19개의 거점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11년 초 경기 안산에 처음으로 문을 열어 전국으로 확대한 청창사는 올해까지 16기를 배출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재도전성공학교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서 청창사는 없어진다. 중기부 산하기관 가운데 창업 관련 업무는 창업진흥원으로 일원화하고 중진공은 재도전·재기 지원 등을 전담한다.

중기부는 안보전문투자기관 설립을 위한 예산 38억원도 새로 편성했다.

노용석차관은 “안보전문투자기관은 중기부와 방위사업청이 함께 만드는 것으로 한국벤처투자의 자회사로 계획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직접 신안보 후보기업과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이는 투자와 육성도 중요하지만 안보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가 관련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이 그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안보, 기후테크, 제약바이오, K-소비재 등 4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300개사 발굴을 위해 내년 예산에 100억원을 처음 배정했다.

모두의 창업은 내년에 더욱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4411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창업 도시에 있는 창업기업과 이전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지역정책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창업패키지에 1700억원(신규), 답테크 중심의 창업중심대학 확대를 위해 1083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또 초기창업기업, 지역기업, AI·답테크 등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확대를 위

해 모태펀드 출자 예산도 역대 최대인 1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올해 중소기업 모태펀드출자를 위한 예산은 8200억원이었다.

중기부는 민간 배달플랫폼 독과점 완화,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상생배달 앱 지원 예산 1240억원도 편성했다.

중기부는 “예산 중 1200억원은 상생배달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할인쿠폰에 활용할 예정이고 나머지 40억원은 홍보 예산이다. 할인쿠폰은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과 연계하기 때문에 ‘박인효과(Lock-in Effect)’가 있을 것”이라며 “전국에 있는 12개 공공배달앱 가운데 공공성, 시장성 등을 평가해 3~4개를 선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이외에도 생업에 집중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수검에 따른 휴업 비용,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2050억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왼쪽 6번째부터)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박영선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 강명수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회장 등이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전략경제와 중소기업 AI 전환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K-온톨로지·AI 팩토리, 中企 참여가 핵심”

중기중앙회·재경부, AI 세미나 개최
박영선 “AI 전환에 中企 역할 중요”
AI 에이전트 대응 업종별 연대 제안

‘K-온톨로지 프로젝트’와 ‘AI 팩토리 활성화’를 위해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AI 에이전트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업종별 중소기업의 연대도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재정경제부가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연 ‘전략경제와 중소기업 AI 전환 세미

나’에서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한 박영선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은 ‘전략경제와 중소기업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AI 대전환 시대에는 경제·산업·과학기술·안보정책을 묶어서 전략경제로 운영해야 한다”면서 “그 과정의 핵심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준비와 데이터 기반의 K-온톨로지 프로젝트 및 AI 팩토리 활성화에 중소기업이 함께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한국형 AI 컴퓨팅 스택 구축 ▲산업 특화형 AI 에이전트 육성 ▲국가 차원 AI 팩토리 전략을 AI 생

태계 설계 국가의 필수 요건으로 제시했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 겸 AI 에이전트 커머스 분과위원장은 ‘AI 에이전트 커머스 글로벌 트렌드와 중소기업 대응’이란 주제 강연에서 “AI 에이전트 커머스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업종별 중소기업이 연대하는 협력형 규제샌드박스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중심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는 재정경제부가 설치한 민간 자문기구인 전략경제자문단의 전략산업 중 AI 에이전트 커머스와 AI·로보틱스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승호 기자

삼성 “주말 낮, 가전 쓰면 캐시백 드려요”

한전과 두 달간 시범사업 운영
세탁기·건조기 등 4개 품목 대상

삼성전자가 주말 낮에 스마트가전을 사용하면 캐시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로 가전 사용을 유도해 전력 수요를 분산하고 스마트싱스를 통한 에너지 관리도 확대한다.

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이날부터 두 달간 ‘스마트가전 캐시백’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 대상 가전을 사용하면 전력 사용량 1kWh당 100원, 시간당 최대 300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제품은 세탁기와 건조기, 식기세척기, 의류관리기 등 4개 품목이다. 전력 사용 비중이 높고 사용 시간을 조절하기 쉬운 제품들이다. 캐시백은 전기요금 차감 또는 현금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번 사업은 전기를 덜 쓰는 기존 절감 방식과 달리 사용 시간대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로 가전 사용을 유도해 전력 수요를 분산한



삼성전자 모델이 ‘스마트가전 캐시백’ 시범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다. 실제 태양광 발전이 늘면서 전력 수요가 낮아지는 시간대로 바뀌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봄·가을 주말과 연휴에는 최소 전력수요 시간대가 기존 새벽에서 낮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스마트홈 플랫폼 ‘스마트싱스’에 캐시백 서비스를 연동했다. 스마트싱스 앱 ‘다이프’ 탭의 ‘에너지’에서 ‘스마트가전 캐시백’ 연결 버튼을 선택한 뒤 회원가입과 기기 사용량 데이터 공유에 동의하면 참여할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 100곳 시범 지정

기정원, 올해 첫 지정제 시범 운영
29일까지 스마트공장 시스템 접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AI 신추진단이 기술력과 현장 실행력이 검증된 스마트제조 공급기업을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 운영한다. 1일 기정원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시장 신뢰 구축과 글로벌 선도기업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올해 100개 사 내외를 시범 지정하는 것으로, 오는 9월 29일까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기정원은 이날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9일 창원, 10일 대전에서 ‘스마

트제조기술 전문기업 시범지정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전문기업 지정제도는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전략 3.0’의 후속 조치로, 중소제조현장의 AI 전환을 실제로 수행할 제조 AI 전문기업을 육성한다.

지정 대상은 스마트제조기술산업 4대 분야(자동차기기·연결화기기·정보화솔루션·지능화서비스)의 공급기업으로, 주력 1개 분야를 선택해 신청한다.

평가는 서면검토, 현장실사, 지정심의위원회의 3단계로 진행된다. 역량진단 결과 및 현장평가 결과, 분야별 분포를 종합해 지정기업을 최종 확정하고, 결과는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中企 신용평가비 최대 90% 할인

중진공·NICE평가정보 업무협약
신용·기술평가 비용 부담 낮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NICE평가정보와 중소기업의 기업신용·기술평가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청년창업사관학교(청창사) 입교·졸업 기업과 중진공 정책자금 이용 기업이 공공조달시장 진출 및 판로 확대 과정에서 부담하는 신용·기술평가 비용을 낮추고 기업의 신용관리와 공공기관 입찰에 필요한 실무역

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신용·기술평가 수수료 할인 ▲기업 신용평가 및 공공기관 입찰 실무교육 제공 ▲중소·창업기업 지원사업 공동 홍보 ▲중소기업 지원 분야 협력사업 발굴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NICE평가정보는 청창사 입교기업과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실행 후 1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 신용평가 수수료를 최초 1회에 한해 5만원에 제공한다. 이는 기업형태에 따라 정산가격 대비 최대 90% 할인된 수준이다. /김승호 기자

울산 미래성장펀드 출범

울산 지역성장펀드가 500억원 규모로 본격 출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울산광역시 중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미래성장 펀드’ 결성식에 참석, 울산에 중점 투자하는 울산 벤처모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끝내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울산 미래성장 펀드’는 모태펀드의 350억원을 마중물로 해 울산광역시, HD현대중공업, 고려아연, 경남은행, 농협은행, 울산과학기술원 등 지역의 기업, 은행, 대학과 같은 다양한 지역 사회 구성원이 출자자로 참여하며 총 500억원 규모의 모펀드가 탄생했다.

/김승호 기자